

OCI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언

김범준*

국내 OCIO 시장은 초기 대형 연기금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후 공공기관, 중소형 연기금, 일반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OCIO를 도입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법인 여유자금, HNW 등 민간영역으로의 확대도 기대된다. OCIO 서비스는 말 그대로 CIO 기능을 아웃소싱한다는 의미로서 고객맞춤형 자산운용서비스라 할 수 있다. 운용목표수립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자산배분 및 전략,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등 OCIO는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관련 모든 역량이 집결된 서비스이다. 따라서 OCIO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및 시스템 등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산운용시장에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당사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OCIO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 OCIO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내 OCI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OCIO업계에서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OCIO 시장의 참여자들을 수요기관, 경쟁업체, 학계 포함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수요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국내 OCIO 시장은 공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후 공적 연기금의 선정 프로세스가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공적 연기금들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의 절차를 거쳐 OCIO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OCIO를 도입한 공공기관, 대학법인, 일반법인 등이 이러한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절차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한 평가방식으로서 공적 연기금 및 공공기관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방식을

논문접수일 : 2022년 11월 29일 논문수정일 : 2022년 12월 12일 논문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5일
본고는 김범준 본부장의 토론자료와 기고문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고 준용하였다.

* 교신저자, 신한투자증권 OCIO본부 본부장, E-mail: bjkim@shinhan.com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량평가 항목이 OCIO 사업 역량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요기관의 위탁자금을 운용할 전담조직 또는 OCIO 조직의 운용성과 및 역량이 중요한데도 전사인력, 랩잔고, 펀드판매잔고와 같이 회사의 규모와 연계된 지표들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OCIO 사업 역량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 영역이라는 점에서 평가자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업계의 발전을 위해 판단 근거에 대한 정보가 보다 폭넓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성평가 점수만 공개되고 있어 업계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는 어떤 부분은 우수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성평가를 담당하시는 평가위원께서 점수 부여 근거를 작성해주시고 이것이 참여 업체에 피드백 된다면 업계 전체적인 OCIO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평가하신 분들의 익명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익명으로라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가격평가의 경우 조달청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입찰 방식의 평가는 지양하거나 수요기관이 가격을 지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OCIO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중소형 OCIO 입찰에 대해서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조달청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의 보수율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기준보수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경쟁업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현재 OCIO 업계는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에는 대형 공적 연기금 입찰 기회가 많지 않고 이조차 증권사 및 운용사 중 업권을 특정하여 선정하는 사례도 많아 OCIO 참여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업계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고객으로 OCIO 서비스를 확장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트랙 레코드를 쌓아보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OCIO 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유치했으면서도 전담조직이나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단순히 자산배분안을 담은 랩이나 펀드를 딜리버리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반고객들이 제대로 된 OCIO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OCIO 서비스를 랩이나 펀드와 동일하게 인식하게 되면 향후 OCIO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의 희망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OCIO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고객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업계 전체적으로 OCIO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OCIO 시장의 경쟁에 있어

외형보다는 역량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학계 및 이해관계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학계 및 이해관계자 분들께서는 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OCIO 선정위원으로 활동하시거나 OCIO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도 병행하고 계신다. 따라서 누구보다 기금과 OCIO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며, 국내 OCIO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업계도 OCIO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정한 기회 확대와 본질적인 역량 확보는 업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계 및 이해관계자 분들께서 OCIO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와 기금 모두에게 개선과 질책의 목소리를 더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OCIO 시장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실에서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학계 및 이해관계자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업계도 이를 바탕으로 OCIO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